

제약적 예술 화두로 '아트·생사 경계' 재해석

CULTURE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예고 없이 다가온 재난과 죽음을 마주한 시간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연속적인 흐름의 삶에 일시적 정지와 단절이 발생한 이후 삶의 연속성을 위한 예술, 제약적 예술의 가능성을 화두로 삼은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이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전으로 마련한 '장미 토끼 소금: 살아 있는 제의'전이 그것으로, 지난 8월 29일 개막돼 2026년 1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2전시실에서 열린다. 출품작은 회화와 설치 작품 36점.

이번 전시는 종교적 의례로서의 제의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세계와 다시 만나는 실천 방식이자 삶과 죽음, 예술과 삶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행위로 제의를 현대미술의 형식으로 소환한다. 재난, 기후 위기, 전쟁의 위협 등 자연재해와 인제에 공존하는 현실에서 제의는 고통과 상처를 해석하고 치유하며, 타자와 교감하려는 예술적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상실을 애도하고 재난의 흔적을 공유하며, 그 너머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공동체적 제의의 장을 마련한다.

초대작가는 이수경, 박찬경, 김주연씨 등이다. 작가들의 작품은 감각과 언어, 몸의 기억을 통해, 다시 삶을 구성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이들 작품과 함께 전시는 현대 예술 작품 속에 나타난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의 흔적을 따라가며 제의적 예술의 가능성과 의미를 성찰한다.

먼저 이수경 작가는 도자기 파편을 이어붙이거나, 잊혀진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하며 감각적으로 복원하는 제의적 실천을 작품화했고, 상실과 상처를 예술적 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작업의 핵심으



박찬경 작 '주련'(柱聯)



김주연 작 '기억지우기'

'2025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전 내년 1월까지 광주시립미술관 1·2전시실에서 이수경·박찬경·김주연 작가 등 36점 선보여

로 삼아, '부재의 감각'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어 박찬경 작가는 한국의 전통 종교나 민간 신앙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이종적인 시선에 관심을 두고 작업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 설화와 사찰 벽화를 해석하면서, 각종 위기에 대처하는 제도적, 이념적 대안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 제시한다. 개인의 상처, 사회적 기억, 죽음과 생명, 소멸과 탄생의 의례적 순환 구조를 시각화한 김주연 작가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 원리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연과 인간의 삶에 공감하며, 그 형태를 식물을 통해 시각화한다. 전시 제목의 '장미', '토끼', '소금'은 각 작가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 혹은 조연으로 등장하는 상징적 언어이다. 이수경 작가의 '장미'는 속세의 욕망과 의지의 덧없음에 대한 부재의 감각이며 애도 과정의 촉매제이고, 박찬경 작가의 '토끼'는 남겨진 개인이나 집단의 상실감을 드러내며, 관객이 현실의 문제에 공감하도록 이끄는 매개체이다. 김주연

작가의 '소금'은 기억과 상처 속 정화와 벽사의 의미를 지니며 생명의 회복과 치유의 가능성을 문화적 경험과 기억 속에 코드화된 상징과 연결한다.

각기 다른 형식에서도 제약적 감각을 담고 있는 세 작가의 작품은 예술이라는 수행을 통해 시공간을 넘나들며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존재와 감각을 공유한다. 이 전시는 뒤늦은 실천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색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모든 존재가 안낼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예술이 던지는 질문이다.

윤의 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3명을 초청해 각 작가의 개성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예술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은 9일 오후 7시. [고선주 기자 rainidea@kwangnam.co.kr](mailto:rainidea@kwangnam.co.kr)

BTS '마이 유니버스'

스포티파이 15억 스트리밍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노래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5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례적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에 이어 단체곡 기준으로 두 번째 15억 스트리밍곡을 보유하게 됐다.

'마이 유니버스'는 콜드플레이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수록곡으로,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하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https://www.ynnews.com)



대원사 '태아령 진혼예술제'

5일 오후 6시 경내 극락전 앞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 스님)는 태아 영기를 위로하는 '태아령 진혼예술제'를 5일 오후 6시 대원사 극락전 앞에서 거행한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태아령 진혼예술제는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어린 영혼들이 이승에서의 업을 풀고 아미타불의 연꽃나라에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또 낙태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와 저출산 문제의 깊은 성찰과 자신의 전도를 발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태아령 진혼예술제는 길 가름을 시작으로 살풀이춤, 명상곡 연주, 상인불 연주와 지장보살춤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태아령 진혼예술제는 관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초대해 함께한다. 문의 061-853-1755.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한강 소설의 장소성과 오월문학의 가능성 모색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연간지시 '시인' 통권 43호 출간 문학상 수상 김수열 시인 조명...민영 문인장 등 '다채'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가 발행하는 연간지시(年刊誌誌) '시인' 2025년호(통권 43호, 발행일 9월 1일)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다양한 특집과 시인 조명, 평론, 서평, 시인들의 신작 시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먼저 '특집 한국문학의 미래를 위하여'가 눈길을 끈다. 김영삼 평론가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과 정소를 통해 5월을 조명한 '한강의 소설이 경유한 장소들과 5·18이 한국 현대사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

미와 가능성을 모색한 조진태 시인의 '오지 않을 미래를 위한 문학으로서의 5·18'이 수록됐다. 현실 참여적인 시 속에 서정성과 뛰어난 상상력을 보여준 작품으로 참여적 서정시인으로 불리는 광주 출신 이상부 시인도 집중 조명했다. 여기에는 시 '봄' 등 다양한 작품을 비롯해 약력과 화보를 담았다. 김경우 평론가의 '치유의 문학-이성부 시에 관한 단상(斷想)', 백애송 평론가의 '산길, 그 너머의 시학' 등 두 편의 평론에서는 이성부 시인의 시적 상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전라도, 백제, 무등산 등이 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징을 살펴보고, '빈 산 뒤에 두고'부터 '지리산',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 '도둑 산길'에 이르기까지 80년 광주 이후 폭력과 부정의 세계가 구원과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로써 이성부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를 조명했다. 지난 6월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난 민영 시인의 문인장 모습도 그대로 담았다. 이밖에도 최진석 평론가의 '다성-약과 민주주의

의-근본 없는 말들의 열정', 김대현 평론가의 '다시,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다'를 통해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을 거친 과정에서 작가들이 보여준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고, 광장에서 쓰인 시들을 소개하며 민주주의의 참다운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제7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인 김수열 시인의 신작 시와 자전 시, 서안나 시인과의 대담, 고명철 평론가의 수상 시집 '날흔'에 대한 서평도 실었다. 또 장은영 평론가는 주목할 만한 광주의 젊은 시인으로 김진성, 조은운의 시 세계를 짚어 보고, 문순태 소설가는 광주고등학교 시절 시작 노트를 들고 찾아보았던 다형(茶形) 김현승 시인과의 인연을 들려준다.

신작시도 풍성하다. 정희성, 도종환, 이병규, 안지은 등 중견부터 신예 시인에 이르기까지 15명의 신작시를 만날 수 있고, 최근 나온 시집 서평도 실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kwangnam.co.kr](mailto:rainidea@kwangnam.co.kr)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간호사 케어

신속 고급 실내 (물리치료)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맞춤형 전문케어(배변, 목욕,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2인 1일)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